

11

2013
THE ART MAGAZINE
MISOOLSIDAE

미술시대

MISOOLSIDAE



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55

PARK HYUNG-JIN

Park Yang-Jin, Choi Jong-Kyung

Park Na-Yeon, Min Jung-Soo



칼리토 카르발료사전

2013. 10. 12 - 11. 12 국제갤러리 3관

야심찬 조각적 설치와 비디오 작업들을 통해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카르발료사의 작업은 건축적 공간의 변형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미묘한 혼돈을 경험하게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의 도시적 풍경에 내재하는 일상적인 물질성을 재규정 함으로써 상실과 평온이라는 시적 감정을 동시에 환기시킨다. (문의: 02-735-8449)



▲ Carlito Carvalhosa ▼ Carlito Carvalhosa · Installation View

야심찬 조각적 설치와 비디오 작업들을 통해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카르발료사의 작업은 건축적 공간의 변형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미묘한 혼돈을 경험하게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의 도시적 풍경에 내재하는 일상적인 물질성을 재규정 함으로써 상실과 평온이라는 시적 감정을 동시에 환기시킨다. 그가 사용하는 재료들은 대규모의 오브제로부터 금방 사용되고 없어질 듯한 직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그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것은 공간에 대한 재해석과 고요한 아름다움의 순간을 창조해내는 일에 대한 열정이다.

카르발료사는 이번 국제갤러리의 첫 개인전을 위해 그의 대표적인 조각적 설치 작품인, <대기실>이라는 의미의 <살라 드 에스페라(Sala de Espera)>를 선보인다. 잊기 힘들만큼 인상적인 이 작품은 전시장을 극적으로 가로지르며 실내공간과 교차하는 12개의 전장(全長)으로 이루어진 나무기둥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가로등 기둥으로 사용되었던 8-12 미터 길이의 이 오브제들은 형용할 수 없는 가벼움과 동시에 죽음의 무게에 대한 불길한 감정을 떠올린다. 실로 그것은 카르발료사의 주요한 작품주제인 건물이 지닌 심리적 측면과 그곳에 주거하는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현대 디자인의 어휘들, 그리고 공간을 공공영역으로 변형시키는 의례들로부터 영감을 이끌어내어 온 이 작가의 설치작업들은 야심적일 뿐 아니라 손쉬운 설명을 거부한다. 게다가 그의 재료에 대한

선택 역시 의미의 고저(高低)를 가지고 유희하는데, 예컨대 가로등 기둥과 같은 일상적 사물들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운동과 감성에 대한 강력한 기표(記表)로 변환시킨다.